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정선희**

<차 례>

1. 머리말
2. 집단 속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3. 개인이 소외되는 원인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집단이 개인을 소외시키는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 사람이 가문이나 가족 내에서 비웃음이나 따돌림을 받거나 용인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이다. 이 작품들은 가문의 창달이나 번영, 지속을 지향하는 소설들이기에 개인보다는 집단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집단 내부에는 공유하는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이념 등이 존재하기에 이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개인을 소외시키는 양상은 그 가문에 새로 들어가는 여성들이 무식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음란할 때에 은근하게 드러난다. <유씨삼대록>의 순씨, <임씨삼대록>의 목지란 등이 대표적인데, 가족들은 그녀들을 비웃고 회피하거나 배척한다. 또 <소현성록>연작에서는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딸이나 조카를 죽이거나, 가족의 일원이 따로 나가 살지 않기를 권하거나, 사적인 재산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등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와 이념, 화합을 중시하는 태도들이 나타난다.

이는 식욕(食慾)이나 색욕(色慾) 등 본성을 억제하기를 바라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었던 듯하다. 또한 충효열(忠孝烈)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가문 위주의 사고방식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집단적 가치와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이념 등은 그 집단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개인에게는 폭력적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은 신화나 전설, 민요, 야담 등에서도 보이는 바이지만, 소설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인물, 서술자의 시각 등까지 읽을 수 있어서 독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 문화를 중시했던 조선후기의 사람들은 집단의 이념이나 가치관 등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기에 개인은 더욱 소외되곤 했다. 하지만 소설 향유를 통해 공감이나 연민과 함께 자각이나 반성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구의 범주를 넓혀 다른 유형의 소설들을 더 고찰한다면 노인이나 이방인, 장애인 등이 소외되는 양상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생각과 감정의 소통이 어려워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한 성찰, 고전문학을 통한 감발과 반성, 위로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개인 소외, 가문, 도덕, 이데올로기, 집단적 가치, 식욕, 색욕, 폭력,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 내에서 한 개인이 작아지고 소외되는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문이나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양상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소위 가문 소설이라 불리는 국문장편소설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문의 창달이나 번영, 지속을 지향하는 소설들이기에 가족 구성원 개인보다는 가문이나 가족 전체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집단 내부에는 공유하는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이념 등이 존재하기에 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 새로 편입된 며느리,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런 분위기와

지향에 적응하고 동조해야 소외되지 않는다.

‘소외되다’는 ‘혐오와 무관심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다, 어떤 무리에서 기피되어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되다’¹⁾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그가 용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이기에, 개인과 사회 즉 개인과 집단은 감정적 단절이 있게 되어 개인은 고립되거나 무력해지거나 주변적인 사람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급격한 사회 변동이 있거나 과학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거나 집단이 조직화되고 농어촌이 도시화되어감으로써 이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어 소외 현상이 야기되고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고전문학을 향유하던 예전 사람들은 사회 변동이나 과학 기술의 속도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요인으로 소외되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소외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소외’개념은 19세기의 철학자 헤겔이나 마르크스에게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중반에서야 논의되었던 것이어서²⁾ 고전문학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소외는 경제와 노동의 문제에 천착하여 이야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선후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드러난 후의 작품에서야 겨우 소외 현상이나 소외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2) 우리나라의 지식문화장에서는 1960~70년대에 소외의 담론 정치가 실현되었는데 이는 프롬과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전유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비판을 위해 마르크스가 사용한 소외 개념도 이 무렵 성장주의적 경제 개발이 야기한 양극화와 비인간화가 소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저항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소외 개념은 전체주의 사회, 대중사회, 산업사회를 비판하는 핵심적 매개어로 사용되었으며, 판단과 감각의 주체성 또는 자율성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의 문제를 함축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서은주, 『냉전의 지식문화 - 1960~1970년대 소외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7, 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그래서 고전소설 중 <홍부전>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사회의 급격한 변화, 즉 재화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홍부와 놀부가 서로 다른 소외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논문³⁾이 있기는 하다. 홍부는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인 재화로부터 소외된 인물이고 놀부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인물이자 재물에 의해 인간성이 박탈된 자기소외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주목했듯이 소설 속 주인공은 어떤 욕망을 표출하면서 그것이 실현되거나 좌절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소외’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보편적 의미를 얻게 된 것은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기에, 인간의 보편적인 소외를 이야기한 헤겔이나 경제와 노동의 문제에 천착한 마르크스, 현대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은폐한다고 한 하이데거 등의 개념⁴⁾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는 소설 속 인물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욕망을 표출했을 때에 ‘소외되는’ 양상과 그 원인이다. 삼대륙계 국문장편 소설에서는 그 집단이 가족이며, 대체로 여성이 식욕, 색욕, 정욕을 표출했을 때에 그녀를 소외시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전소설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의 발화나 생각은 나오지 않는다. 당사자의 느낌은 서술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서술되었다면 소외되는 이의 느낌이나 생각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대문학⁵⁾

3) 이상일, 「<홍부전>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두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4) 임채광, 「소외개념에 대한 프롬과 마르쿠제의 정신분석학적 해명」, 『동서철학연구』 67, 한국동서철학회, 2013.

5) 1960년대의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소외 양상을 분석한 논문(정규희,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소외양상 연구」, 『동남어문논집』 27, 동남어문학회, 2009, 157~179쪽.)에서는 뒤르껴의 아노모 이론을 적용하여 행위의 방향감을 제공해주는 삶의 지표와 행동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주인공이 관념 속에서 길을 찾는 양상, 자기 세계를 찾는 것에 실패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양상, 힘들

과의 차이이기도 하다. 아직 작가나 향유층이 이에 대해 주목하고 문제화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소외되는 이들의 감정을 살피기⁶⁾보다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 소외되는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집단 속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기에 그 개인이 뚜렷하게 나뉘거나 나쁜 행실을 하지 않았는데도 집단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분위기 등에 의해 소외되는 경우에 집중한다. 악한 인물이 악행을 저지른 후의 정치나 멸시와는 다르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사의 초기에 연작형으로 일군을 이루어 창작되었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들을 택함으로써 그 특징과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짚어보려 한다. 이들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상층 양반가문에서 주로 향유되었으므로 가족 공동체 즉 집단의 윤리나 이데올로기, 지향과 개인의 욕망이나 성향이 충돌하는 양상을 담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집단 내에서 은근히 소외되는 양상은 그 가문에 새로 들어가는 며느리들이 무식하거나 많이 먹거나 음란할 때에 드러난다. <유씨삼대륙>의 순씨, <임씨삼대륙>의 목지란 등이 대표적이다. 순씨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거나 지나치게 못 생기고 우스운 행동을

고 아픈 삶의 원인을 찾아 방향하는 양상 등을 소외의 양상으로 살폈다. 1920년대의 도시에서 드러나는 소외의식을 분석한 논문(신진, 「한국 도시시의 소외의식」, 『한국문학논총』 57, 한국문화학회, 2011.)에서는 문명에서의 소외, 사회로부터의 소외, 자기와 세계 상실의 소외 등으로 나누어 살피기도 했다. 현대문학에서는 주인공의 생각과 느낌, 고민과 내적 갈등이 많이 서술되어 있기에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다.

6) 1930년대의 이상의 시나 소설, 50년대의 김수영의 시, 60년대의 소설들에 이르러서야 소외되는 이들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 엄경희, 「이상의 시에 내포된 소외와 정념」, 『한민족 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14; 박주택, 「김수영 시의 소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많이 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목지란은 기질이 기이하고 음흉하며 외모도 흉악하여 떠들려지거나 배척된다. 딸의 경우에도 가문의 위상을 더럽혔을 때에는 가차 없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집단이 우선하는 선택이 보이는데, <소현성록>에서 교영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통(私通)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텐데도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딸을 죽이거나, 가족의 일원이 따로 나가 살지 않기를 권하거나 사적인 재산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등 집단의 가치와 이념, 화합을 중시하는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식욕(食慾)이나 색욕(色慾) 등 본성을 억제하기를 바라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클 것이며, 충효열(忠孝烈)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가문 위주의 사고방식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과 그 원인들을 탐구함으로써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구조적인 폭력, 은근한 폭력⁷⁾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며느리가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부관계나 고부 관계 등에서 다루었다.⁸⁾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런 단일 관계 속에서보다는 가문이나 가족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
- 7) 가문이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가 개인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개인은 타자화되거나 불행하며 자아가 손상되거나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 - <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한길연, 「<완월화맹연>의 정인광 -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18.
- 8)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0; 정선희,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핌(褒貶)양상과 고부상(姑婦像)」,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가족 구성원인 개인에게 보내는 시선과 감정, 행동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⁹⁾ 집단 전체를 위한 선(善), 현대적 의미로는 공공선(公共善)이나 공익성(公益性)을 성취하고 공적인 위상을 높이며 규범과 덕목을 지키기 위해 개인을 억압하거나 소외시키는 경우를 보는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살피는 것이 현대의 사회학이나 철학에서 다루는 소외 현상과는 다르겠지만, 집단 공동체가 지향하는 규범이나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존재감과 존재 의의를 작게 만들거나 고립시키거나 배척하는 양상은 분명 개인을 소외시키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당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단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며, 현대에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소외에 대한 성찰을 고전소설을 통해서 시도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9) 기존의 연구에서는 순씨와 목지란이 추모(醜貌) 때문에 시집 가문에서 타자화되기에 추모가 문화자본의 결핍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가문소설의 향유층이 이러한 타자화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조혜란(2009), 앞의 논문.) 이 때의 '타자화'는 본고의 '개인 소외'와 비슷하게 이해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녀들이 소외되는 이유를 추모에만 있다고 보지 않고 이에 더하여 대식(大食), 음란, 음흉함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녀들을 소외시키는 집단, 즉 가족의 행동이나 생각, 서술자의 서술 등에 주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순씨와 목지란, <이씨효문록>의 원씨, <명주보월빙>의 연씨 등을 묶어 '우부형 인물'이라 명명하고 그 서사적 기능을 고찰한 발표가 있었다.(김동욱, 『한글장편소설의 '우부형 인물'을 통해 살펴본 정의의 문제-〈유씨삼대록〉, 〈명주보월빙〉, 〈이씨효문록〉, 〈임씨삼대록〉을 대상으로』, 『2018 전국고전문학자대회 발표자료집』, 2018. 11.) 이 발표에서는 우부형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갈등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가문 공동체의 규범의 유연성과 포용력을 보여주거나 규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본고와 다른 해석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순씨를 보고 가족들이 웃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본고에서는 비웃음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가문의 규범이나 기존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그녀가 집단 내에서 소외되는 양상이라고 해석한다. 자세한 것은 2, 3장의 내용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집단 속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1) 비웃음

<유씨삼대록>¹⁰⁾의 순씨는 유세필의 둘째 부인이다. 첫째 부인인 박씨의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에 아내로 들인 것인데, 키가 남편보다 크고 허리도 굵으며 목은 짧고 등이 넓으며 이마가 튀어나오고 코가 주저앉아 있는 등 우스운 외모로 묘사되며 등장한다. 그래서 혼인하는 날에 시어머니, 동서, 시누이들이 박씨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손님들도 말이 없고 시아버지도 한심하게 여겨 쓴 웃음을 짓는다. 이를 보고는, 박씨가 너무 예뻐 세필에게 항복하지 않았었는데 순씨는 근검하고 장대하여 기뻐할 만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복에 넘게 아름다운 신부라고 신랑을 놀리기도 한다.¹¹⁾ 이런 말을 듣고도 순씨가 크게 웃으니 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잔치는 끝난다. 세필이 신방에도 들어가 신부와 기분 좋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시녀 등이 가서 보고는 그녀를 구두사자(九頭獅子)와 같은 괴물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그러나 세필은 박씨의 차가움보다는 이런 추한 모습과 기괴함이 낫다면서 그녀와 잘 지낸다. 하지만 식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웃는다.

모든 젊은 여자들이 섞이어 있으니 신부의 모습이 같잖아서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웃을 사람이 없으나, 공주와 소씨, 현영 세 사람이 안색이 태연자약하였다. 문득 조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신부가 시택에 들어왔으니 잘하는 바가 무엇인가?”

10) 한길연·김지영·정언학 역주, 『유씨삼대록』 1~4권, 소명출판, 2010. 이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들은 첫 번째 언급할 때에만 현대역본의 서지사항을 밝히고 이후에는 원문의 권과 면수만 제시함.

11) <유씨삼대록> 6권 67~70쪽.

신부가 고개를 늘이고 입술을 물어 대답하였다.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없으니 배운 것으로 밥 짓기와 방아 쪼기를 잘하고 그 밖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이부인이 잠깐 웃고 조부인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순박하고 우직하여 연소배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형님은 부질없는 말로 묻지 않으시는 것이 다행일까 합니다.”

조부인이 낭랑하게 웃고 말을 그치니 모든 젊은 여자들이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다. 여러 젊은이들이 들어와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나뉘어 앉으니 빼어난 골격과 깨끗한 신체가 대청에 빛나는 중 학사는 더욱 나이가 어리므로 갓 피어난 연꽃과 갓 돌아난 반월 같아 아리따게 고운 광채가 형제 중에서도 특출하였다. 순서로 비교한다면 우주 사이로도 비하지 못 할 것이었다. 박소저의 하늘이 내린 빼어난 미모와 난초같이 아름다운 자질을 나무라고 저 추녀로 함께 동락하는 비위를 생각하면 학사가 도리어 더럽게 여겨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부의 후대하고 박대함을 알지 못한 채 탄식할 뿐이고 학사가 또한 모르지 않으나 자연히 억지로 힘써 정을 두어 남이 말하지 않아도 날마다 해운정에 갔다.¹²⁾

이후에, 생사를 모르던 박씨가 돌아오자 그녀와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면에서도 순씨는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말은 더듬거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어머니인 이부인도 순씨가 이상하게 생긴 외모와 해괴한 정신으로 학사의 대접을 받는 것을 괴이하게 여긴다.¹³⁾ 그러던 중 집안의 여자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하려 할 때에 순씨를 초대하는 장면을 보자.

“오늘은 소형의 말씀 같이 형제들이 모여 즐기십시오.”

그리고는 순씨를 청하려 하니 양한림 부인이 말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오면 아담한 모꼬지에 더럽고 추한 풍파가 일어날 것이니 부질없는 일입니다.”

12) <유씨삼대륙> 6권 72쪽.

13) <유씨삼대륙> 7권 10~12쪽.

설영소저가 낭랑하게 웃으며 말했다. “성인의 집안에 화근이 있으니 저런 류라도 있어야 심심하지 않을 것 아닌가? 아이는 세상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좌중이 다 웃었다.

이윽고 순씨가 칠보단장을 새로이 어지럽게 하고 들어와 박소저 위에 자리를 이루니 세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다. (중략) 순씨가 좌우로 얼굴을 돌아보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를 정신 놓고 살피다가 갑자기 한 마디 급한 기침이 나는 바람에 그 소리로 난간이 터지는 듯했다. 좌중이 처음엔 다 무슨 이상한 변이라도 났는가 싶어 놀라다가 이윽고 분 냄새가 진동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의 향기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모든 부인들이 한꺼번에 소매를 들어 코를 가리니 이로 인해 이 잔치 이름을 ‘엄비연(奄鼻宴)’이라 하였다.

순씨는 모든 사람들이 소매를 들어 코를 막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워 낮을 붉히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소씨가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어 진정시킨 후 푸짐한 음식을 내어와 즐기었다. 순씨는 술과 음식을 보자 두 손을 가로 들고 그 맛에 깊이 빠져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진수성찬이 상에 가득하고 맛이 아름다움을 좋게 여겨 한 번에 다 못 먹을까봐 마음이 바빠 푸른 입술을 들추며 함께 쑤셔 넣어 순식간에 마구 씹어 다 먹었다. 순씨가 빈 그릇을 놓고 부끄러운 듯이 앉아 있는 것을 본 강소저가 자기 상에 있던 진미 여러 그릇을 옮겨 놓으며 먹기를 권하니 순씨가 흔쾌히 받아서 먹었다. 자리에 진국 부인 장씨가 있다가 그윽이 우습게 여겨 문득 말했다. (중략)

그리고는 술잔을 내와 서로 권하니 소씨와 장씨가 다 박소저를 향해 치하하면서 도 유달리 순씨에게는 권하는 일이 없었다. 순씨가 노기를 머금고 장부인을 깊이 뚫어 보니 장씨가 알아보고 빨리 옥잔에 술을 가득 부어 순씨에게 권하며 말했다.

“우리 동서 형제들이 즐기는 가운데 부인의 꽃 같은 얼굴과 별 같은 눈을 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첩의 정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누추한 음식을 맛보아 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잔을 들어 치하하고자 합니다.”

순씨가 기뻐하며 받아 마시자 장씨가 잇달아 권하였다. 일곱 여덟 잔에 미치지 순씨가 크게 취해 얼굴이 온통 붉어진 채 두 팔을 뻗내며 주홍을 이기지 못하니 강부인이 앉은 자리가 가까우므로 술 냄새를 괴롭게 여겨 문득 일어나 서쪽 난간에 따로 앉았다.¹⁴⁾

모든 여자 식구들이 모이는데 순씨가 오면 더럽고 추한 풍파가 일어날 것이니 부르지 말라는 말에, 심심하지 않도록 부르라고 하니 모두 웃었다고 했다. 그렇게 심심풀이로 불러온 순씨는 정말로 기이한 행동들을 하여 좌중이 웃게 만드는데, 기침과 변 냄새 등 더러운 것들이 동원된다. 술까지 많이 마셔 취하게 된 순씨는 급기야 박씨를 넘어뜨리고 때리며 옷을 찢는 등 추태를 보인다. 순씨가 크게 소리 지르고 박씨 위에 걸터앉아 무수히 난타하고 두 주먹을 어지러이 내두르니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자리에 있던 설씨가 막아 그친다.¹⁵⁾ 하지만 술에 취하여 꺼꾸러져 음식을 무수히 토하고 누워서 잠에 깊이 들어 코 고는 소리가 우레 같으니, 여덟 살 조카가 보고 와서는 “입에서는 음식이 가득하게 나오고 아래로는 분수가 흐릅니다.”라고 하여 자리의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는 지경에 이른다.¹⁶⁾

하지만 시아버지는 순씨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녀를 부탁하고 왔기에 아끼고 감싼다. 세필도 그 말을 듣고는 그녀가 박씨를 때리거나 사고를 치더라도 그냥 둔다. 그러나 서술자는 계속하여 그녀의 행태를 ‘기괴하고 치졸하다’고 하고 그녀의 ‘본성이 미련하고 사납다’고 한다. 하지만 순씨는 주변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남편 세필을 좋게 생각하여 그의

14) <유씨삼대록> 7권 45~49쪽.

15) <유씨삼대록> 7권 50쪽.

16) <유씨삼대록> 7권 53쪽.

일거수일투족을 본받는다. 그래서 남편과 비슷한 모양새가 되어간다.

비록 얼굴은 달랐으나 행동거지나 차림새의 모든 제도가 흡사 학사와 같게 된다. 세월이 오래 되어 그 성정을 익히고 심성을 교화하여 공부를 다 이루자 완전히 ‘못나게 생긴 유세필’처럼 되어 온 집안의 젊은 남녀들이 웃지 않을 사람이 없어 다 가리키며 웃고 말했다. “세필이 남자 중 가장 단아한데 순씨의 배우는 제도가 어찌 이렇듯 조용하지 못한가?”

이렇게 말하며 서로 웃으니 설영소저가 형제 중 가장 말하는 것이 화려한 까닭에 학사와 순씨를 보면 항상 놀리며 웃고 말했다. “오라버니는 배우는 제자가 있으니 걸음을 조용히 걷고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소매 떨치는 것을 그치고 담소할 때는 부채 치는 것을 자주 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무릎으로 앉아 시사(詩詞)를 음영하는 것은 더욱 부인의 일이 아닌데 어찌 공손한 제자를 이리 잘못 가르치십니까?”¹⁷⁾

이렇게 순씨는 비웃음이 대상이 되지만 남편이 감싸주기에 외롭지 않다. 순씨가 자신을 따라 배우는 것이 유순한 부덕이라며 칭찬하곤 한다. 그러나 “시누이 설영소저가 이 거동을 보고 크게 우습게 여겨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며 기절하여 넘어질 듯이 웃었다.”(7권 65~66쪽), “잔치 자리에서 순씨가 어른들께 잔을 드리는데 긴 의상에 주체 못하는 걸음과 채신없는 모양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을 돋우어 모든 사람들이 기절해 넘어질 듯 웃었다.”(7권 83쪽), “순씨 형님은 본래 추비한 사람이라”(18권 29쪽) 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이가 들고 나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순씨가 나이가 쇠로한 후에는 우스운 거조가 조금 없어졌으나 본래 타고난

17) <유씨삼대록> 7권 64~65쪽.

용렬함을 어찌 벗어나겠는가? (중략) 두려워하던 시부모가 없어지자 더욱 방자하여 크게 지껄이며 높은 소리로 호령하여 맏며느리의 소임을 스스로 하고자 하여 항상 장부인의 온유함을 억눌렀다. 장부인이 저를 어찌 눈가에나 두겠는가마는 오직 화협하기를 주로 하여 순씨가 공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문득 웃고 기뻐하여 말하였다. “지혜로운 자도 천 번 생각함에 한 번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도 천 번 생각함에 한 번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니, 모든 형제와 좌우 사람들은 순부인을 웃지 마시게. 순부인의 꾸짖음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구려.” (중략)

순씨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자녀들을 어지럽게 쳐서 거꾸러뜨리고 부용각에 이르렀다. 장부인이 바야흐로 자녀, 며느리들과 더불어 집안(27면)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순씨가 뜻밖에 달려 들어와서는 장부인이 쓴 관을 벗기어 찢고 철퇴 같은 주먹으로 어지럽게 장부인을 치면서 매우 꾸짖어 말하였다. (중략) 장부인의 말씀이 더욱 공손하고 온화하며 안색이 태연자약하니, 순씨가 다시 할 말이 없어 입속에서 중얼중얼 모질게 꾸짖고 문득 걸음을 돌이켜 서현으로 들어갔다.¹⁸⁾

이렇게 그녀는 가족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소외되는 면이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비호와 남편의 양해 아래 비교적 잘 지냈기에 좌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면에서 보통의 며느리들과는 다르다. 가족들이 은근히 비웃고 따돌리면서 소외시키지만 본인에게는 심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¹⁹⁾

2) 회피와 배척

18) <유씨삼대록> 19권 24~27쪽.

19) 본인이 소외된다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 소외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체장애인,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소외되는 것을 말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지만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임씨삼대록>²⁰⁾에서 임희린의 아들 창홍의 셋째 부인이 되는 목지란도 임씨 가문에 편입되면서 가족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녀는 임씨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가기 전, 설씨 가문에 할머니의 친척 자격으로 들어가므로 이때부터 보기로 한다. 설씨 가문은 임창홍의 첫째 부인인 설성염의 친정이자, 임세린의 딸 월혜의 사위인 설희광의 본가이다.

목지란은 설천의 아내 목부인의 오빠 목주사의 손녀인데 그 부모가 일찍 죽어 주사가 길렀다. 남동생 지형과 함께 품성과 기질이 기이하고 음흉하며, 차갑고 더러운 기운을 모아 흉악한 모양의 괴물을 내놓은 상이었다고 소개된다. 흉악하고 박색인 얼굴이 얇고 맺었고, 금방울 같은 두 눈은 모나고 흉하였으며 입술이 위로 들려 이가 드러나 보이는 등 야차(夜叉)나 우두나찰(牛頭羅刹) 같은 외모이다. 숨소리도 이상하여 쟁기를 메단 소 같고, 속이 음흉하고 간특하다고 되어 있다. 가난하여 잘 못 먹고 지내다가 설씨 집안에 들어와서는 먹을 욕심이 불 일 듯하여 좋아 뛰었고 그 떠드는 소리는 해괴하고 놀라웠다고 묘사되고 있다.²¹⁾ 성염의 유모는 지란 남매를 ‘독사의 정령이자 이리의 後身’이라고 하면서 시녀들에게 조심하라고 한다.

지란은 먹고 입는 것이 분에 넘치게 풍요롭자 어리석은 기질이 나타나 설성염을 괜히 모함하기도 하는데 그 할머니인 목부인도 성품이 나쁜 사람이었기에 성염의 아버지 설공은 늘 불안해하고 근심거리로 여긴다. 성염 소저의 혼인 날에도 지란 남매에게 알리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매우 흉악’하고 ‘행실이 불량하고 어리석어서’이다.

20) 김지영·최수현·한길연·서정민·조혜란·정언학 역주, 『임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21) <임씨삼대록> 1권 35~40쪽.

지란은 지형같이 간사하고 딱딱하지 못하여 목부인 곁에 있으면서 종일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입에 달고 살아 완전히 기름진 산돼지 같았는데, 몸이 기름지고 살집이 가득하여 걸음을 걸으면 마루가 무너지므로 집안의 유포가 손가락질하며 꾸짖곤 하였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음욕이 발동하는지 좋은 계절이 온 것을 반기며 때때로 봄을 느끼고 정원에 밭을 디뎠으나 어느 남자 눈에 나 떨 수 있었겠는가? 그제 목부인 처소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설사인 등이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오면 그 흉물스런 눈을 늘여 그들의 아름다운 풍모를 보고 땀이 안을 듯 두 아귀에 침을 흘리며 보다가 할머니께 절하고 나가면 한숨을 쉬며 흐느끼니 그 누추함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²²⁾

이렇게 설씨 집안에서는 그 흉물스러움, 음흉함 때문에 가족들이 피하면서 지란 남매가 일으킬 흉악한 변고가 집안과 나라를 어지럽힐 것을 생각하고는 마음이 서늘하고 뼈가 떨리나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방도를 알 수 없어 한다.

이렇게 설부의 남녀노소는 지란의 예측 불가능한 행사를 꿰뚫고 있었으나 모르는 체한다. 설공도 그녀의 행실을 듣고 놀라고 분한 마음을 품지만, 홀어머니인 목부인의 과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들 된 도리가 아니라 여겨 묵묵히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집안의 시녀들도 그녀를 꺼리고 미워하며 목부인도 한탄하면서 회피한다.²³⁾

그러던 중 목지란은 임창홍에게 반하여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혼인하게 되는데, 혼인날에도 그 모습이 흉물 같고 절 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되어 있다. 절을 할 때의 숨소리가 6월의 뜨거운 날 소가 쟁기를 끌 때 나는 소리 같기에 사람들이 그녀를 바로 보는 것을 흉하게 여긴다. 그녀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으쓱으쓱해 하며 흉한 거동이 막심하니, 곁에

22) <임씨삼대륙> 2권 45~46쪽.

23) <임씨삼대륙> 3권 5~6쪽.

있던 여러 어린 시녀들이 몹시 놀라 호랑이와 표범을 마주 대한 것처럼 한다. 그녀를 모시게 될 시녀들은 서러워 울고 여러 부인들은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²⁴⁾

이렇게 혼인한 날부터 임씨 가문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남자를 엿보고 먼저 골랐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여겨지면서 피해지고 고립되며 소외된다. 그렇게 살다가 임창홍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설부인을 모해하던 옥선군주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여성 인물이다.²⁵⁾

3) 불용(不容)과 제거

<소현성록>²⁶⁾에는 고전소설 중 그 어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사약을 먹이는 장면이다. 주인공 소현성의 어머니인 양부인이 둘째 딸 교영이 사통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인데, 목숨보다 절개와 가문의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딸이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인이 한번 듣고는 딸이 실절(失節)한 것을 알았다.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매우 화가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교영을 불러오게 하여 당 아래에 꿇리고 죄를 따졌다.

“네가 타향에서 귀양살이를 했으나 몸을 깨끗이 하여서 돌아올 것이거든 순간 실절하여 죽은 아버지와 산 어미에게 욕이 미치며 조상에게 불행을 끼치니 어찌 차마 살려 두겠느냐? 친정에는 못난 딸이고 시집에는 더러운 여자가 되어 친지간에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 자식의 정을 끊

24) <임씨삼대록> 10권 25~27쪽.

25) 이와 비슷한 경우가 옥선군주, 옥경군주, <조씨삼대록>의 천화 군주 등이다. 이들도 기이함과 음란함 때문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은 악행을 본격적으로 저질렀기에 비난 받고 징치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여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26)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 2010.

어 한 그릇 독주를 주니 빨리 마셔라.”

교영이 아뢰었다. “제가 비록 잘못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남은 목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부인이 꾸짖었다.

“네가 스스로 네 몸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이 죽으라고 재촉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물며 그렇거든 무슨 면목으로 ‘용서’ 두 글자를 입 밖에 내느냐? 내 자식은 이렇지 않을 것이니 내게 어미라 부르지 마라. 네가 비록 유배지에서는 약해서 절개를 잃었다지만 돌아오게 되어서는 그 남자를 거 절했어야 옳거늘 문득 서로 만나자고 언약하고 사는 곳을 가르쳐 주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이는 나를 흠이나 나무토막같이 여기는 것이다. 내가 비록 일개 여자지만 자식은 처단할 것이니 이런 더러운 것을 집안에 두겠느냐? 내가 비록 구천(九泉)에 가더라도 이생과 아버지를 무슨 낮으로 보겠느냐?”

말을 마치고 약을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며 교영에게 먹이니 월영이 머리를 두드리며 애걸하고 석과 등이 계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슬피 빌며 살려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부인의 노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매서워 겨울바람 부는 하늘에 걸린 찬 달 같았다. 소생은 눈물이 비단 도포에 젖어 자리에 고였지만 입을 닫고 애원하는 말은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 그 속뜻을 알 수가 없었다. 부인은 월영과 석과 등을 앞뒤에서 부축하여 들어가게 하고 그들의 청을 끝내 들어주지 않은 채 교영을 죽였다.²⁷⁾

딸에게 분노하여 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녀가 절개를 잃었기에 죽은 아버지와 살아 있는 어머니에게 욕을 미쳤으며 조상에게 불행을 끼쳤으니 살려 두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딸 교육을 잘 못하여 이렇게 되었기에 먼저 죽은 사위와 남편을 대할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가족들이 만류하고 딸이 아무리 애원해도 기어이 사약을 먹게 하여 죽인 어머니의 냉엄함. 이것이 <소현성록>에서 보여주는 가문 중심주의의 단적인 면이라

27) <소현성록> 1권 39~40쪽.

할 수 있다. 집단의 위상을 위해 개인의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집단의 일원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외’를 관계가 빚어낸 비인간적인 사태라고 보기도 하는데²⁸⁾, 교영의 경우도 어머니와 가족들이 열(烈)이데올로기를 중시하여 비인간적인 사태를 만들었기에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문을 우선하고 집단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소현성록>연작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소운성이 조카 소세명을 가차 없이 죽인 일²⁹⁾이 그것이다. 물론 대궐 창고로 쳐들어가기로 모의했으므로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목숨을 살려둘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운성은 망설이는 아우와 원망하는 제수의 만류와 안타까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혈육을 직접 활로 썩 죽이는 냉엄함을 보인다. 충(忠)이라는 가치 때문에, 가문의 안위 때문에, 일말의 여지도 없이 조카를 죽인 것이므로 집단 속에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소외 시키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개인이 소외되는 원인

28) 엄경희(2014), 앞의 논문, 338쪽.

29) 세명은 운성의 동생 운숙의 둘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거동이 사나워서 할머니와 부모님이 모두 사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혼인하고 나서도 창루(娼樓)에 드나들며 외입하더니, 마침내 도적의 무리에도 들어간다. 운숙이 산을 유람하다가 우연히 그들이 황성의 대궐 창고로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와 운성에게 말하자, 운성은 “이 말이 새어 나가면 그 화가 삼족(三族)에 미칠 것이며, 당당히 그 머리를 베어오면 천하를 줄 것이다. 부자간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큰 화를 부르려 하느냐?”면서 삼천 대의 철수레를 이끌고 역적 무리를 토벌하러 간다. 이때에 그들은 이를 ‘충성과 양심을 잃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소현성록> 14권, 69~71쪽.

1) 인간 본성을 억제하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의 영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식(食)과 색(色)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孔子)는 사람들이 호덕(好德)보다 호색(好色)에 치중한다고 탄식했으며, 고자(告子)는 식과 색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하였다. 『예기(禮記)』에서도 음식과 남녀가 인간의 큰 욕망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인간에게 있어 이 두 가지 욕구가 얼마나 기본적인고도 큰 욕구인지 알 만하다.³⁰⁾ 이 욕구들을 가족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욕구들은 다른 개인들과 갈등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한되고 억압될 수 있다. 특히 이 욕구들이 과도하게 표출되었을 때에는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문화 이데올로기의 통제를 받게 되기 쉽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을 가족 윤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족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일종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³¹⁾ 그래서 기존의 가족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체화하고 있기에 무리 없이 지켜가거나 져어들어 있지만, 새로 편입된 가족은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 <유씨삼대륙>의 순씨처럼 지나친 식욕을 그대로 드러내며 많이 먹으면서 취하고 토하기도 하여 비웃음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물과는 달리 남성인물의 식욕은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영웅소설 유형에 속하는 <소대성전>의 소대성이나 <낙성비룡>의 이경모 등 남성 주인공들은 대식(大食)을 하고 게으르기까지 하지만 이를 비범성으로 받아들이는 장인이나 조력자가 있어 결국에는 성공하는 영웅이 된다. 많이 먹는 것은 거인설화 속 거인들의 특성이기도 하고 서사무가 <창세가>의 미륵이나 <세경본풀이>의 정수남, <송당본풀이>의 퀘네깃또

30) 이숙인, 「유학의 가족사상」,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38쪽.

31) 이숙인(2007), 위의 글, 39쪽.

에게서도 보이는 특성이다. 이경모나 정수남은 많이 자기도 하는데, 많이 먹고 많이 지는 것이 영웅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³²⁾

이렇게 신화나 무가, 영웅소설의 남주인공들에게서 발견되는 대식성은 영웅적인 면모를 대변하는 것으로 쓰였지만, 국문장편소설의 여주인공에게서 발견되는 대식성은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여성 억압적이다. 그러나 식욕은 모든 인간에게 있고 또 그 자신들도 자신의 대식을 알고 있기에 이를 어기는 이들을 지나치게 몰아세우지는 않고 비웃는 정도에 그치는 편이다.

하지만 ‘색(色)을 밝히는 것’은 음란함으로 규정되어 더 심하게 규제된다. 정절 이데올로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가문의 혈통 보존과도 관련되므로 색욕을 드러내는 여성은 비난 받는다. 남성 인물들은 다처(多妻)에 첩까지 두더라도 여성 인물들은 성적 욕망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다.

식이든 색이든,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이를 드러내어 소외되는 인물들은 대체로 가족이라는 집단에 새로 편입된 여성, 즉 며느리들이거나 아직은 젊은 층이다. <임씨삼대록>의 목지란, 옥선군주, <조씨삼대록>의 천화군주, <소씨삼대록>의 명현공주 등은 남편감을 먼저 알아보고 지목하거나 혼인하고 싶어 하여 억지로 혼인하지만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외되거나 냉대 받으면서 더욱 악한 행실을 하게 되는 인물들로 그려지는 것이다. 특히 명현공주의 경우 가족들이 그녀를 대할 때에 웃지 않거나 혼연치 않거나 어떤 행동에 대해 이유를 말하지 않거나 웃기만 하거나 침묵한다.³³⁾ 그녀는 점점 멋대로 행동하면서 가풍(家風)에 어긋하게 되고 시아버지나 남편과 극단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국면에 이르고 급기

32) 정제호, 「<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33) <소현성록> 6권 42~46쪽.

야 화병으로 죽게 된다.

여성들의 실제 삶을 담고 있는 <시집살이노래>들에서도 시집 가족들의 터무니없는 구박이나 멸시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 중이 되는 경우를 보면, 며느리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대우 중 가장 서러운 것이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찌꺼기를 먹게 했다든지 부뚜막에 혼자 앉아 먹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대우를 폭로하기 위해 중이 되거나, 죽어서 꽃이 되면 좋겠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의를 하는 내용의 <양동가마노래> 유형도 있는데 여기서는 양동가마가 깨진 것이 며느리의 결함 때문이 아닌데도 그녀에게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⁴⁾ 이렇게 잘못된 일의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것은 시대 식구들의 '원천적인 미움'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할 정도로 한 가문에서 며느리의 위치는 낮다. 사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하거나 위상이 전복되거나 인정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덜 차별적이다.

2) 충효열의 집단적 가치와 이념 중시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은근한 폭력은 집단이 중시하는 가치와 이념을 우선시할 때에 가해진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들이 향유되던 조선후기에 중시되던 가치는 단연 충효열(忠孝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충성을 위해 가문의 일원을 죽이기도 하고, 열절(烈節)을 훼손한 딸을 죽이기도 하며, 효성스런 마음에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해 앓다가 죽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신화나 전설에서도 나타나던 바인데, <아기장수전

34)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70~177쪽.

설>, <장자못전설>을 비롯하여 <바리공주> 등에서 충성이나 효도를 위해, 가족의 안위를 위해 한 개인이 희생되는 면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의 김유신 이야기에서도 김유신은 아들 원술이 신라가 패했는데도 살아 돌아오자 왕에게 그를 죽여 달라고 하기까지 한다. 왕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끝내 아들을 용납하지 않아 원술은 벼슬을 버리고 태백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⁵⁾ 사사로운 정으로 본다면 아들이 살아온 게 반가워야 했을 테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당대인들은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여겼을 것이기에 이야기화하여 전했을 것이다.

가문이라는 공동체를 우선했기에 아들인 아기장수를 죽이고 원술을 용납하지 못한 것처럼 여성에게는 공동체의 위신을 위해 열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현성록>에서는 딸 교영이 사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사약을 먹였다. 이렇게 개인의 목숨보다 열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의 이념 때문에 수많은 열녀 설화와 열녀전들이 지어지고 전해졌을 것이다. 또 <소씨삼대록>에서는 가문을 계승하는 데에 중요한 ‘장자(長子)’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를 다쳐 거동이 힘든 동생은 잠시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 형제들이 함께 산에 갔을 때에 산불이 나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성이 맏형을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쳐 엎어져 있는 동생에게 “너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맏형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두고두고 욕을 들을 것이다. 내 힘이 능히 두 사람을 거느릴 수는 없구나. (후략) ……”³⁶⁾라고 하는 것이다. 집안의 가장(家長) 역할을 하게 된 운성이 조카를 죽였듯이 맏형을 구함으로써 개인보다는 가문을 중시하는 면을 여실히 보

35) 이지영,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갈등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201~209쪽.

36) <소현성록> 12권 65쪽.

여준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들에서는 이렇게 집단의 유지를 중시하는 것과 함께,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는 경향도 드러난다. 종족 중심의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소가족으로의 이행이 점차 진행되던 시기였기에 부모 자식의 새로운 관계가 예고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던 것이다.³⁷⁾ 특히 공공 재산이 주는 연대감이 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가족 개인이 사적인 재산을 갖기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씨삼대륙>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서모나 며느리가 개인 재산을 갖지 않는 것을 칭찬하였고, 부모가 죽은 뒤 자녀들이 나가서 따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언술들이 있었다. 조선후기의 야담집들에서 그려진 가족 이야기에서도 가족의 중심에는 가문의 이익이 있었다. 이는 개인이 가문의 한 조각으로만 존재할 뿐, 사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며, 가문이라는 틀 안에서 복종과 의무가 강요되던 현실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렇게 가문의 가치와 위상을 중요시하다 보면, 가문의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위는 처가에서 기를 못 펴게 되는데, <소씨삼대륙>에서의 사위 김현이 그러하다³⁹⁾. 현대의 구비설화에서도 사위에 대한 처가의 기대와

37) 이숙인(2007), 앞의 글, 43쪽.

38) 김준형, 「가족의 의미망을 통해 본 야담」,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52~153쪽.

39) 물론 김현의 형과 어머니가 소수빙을 포함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정치한 뒤에, 김현이 처가 옆으로 집을 옮겨 가 살게 된다. 형과 어머니를 만날 때에는 소씨 형제들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여 몰래 보는 등 눈치를 보며, 수빙은 한 달에 열흘을 친정에 가서 머물기도 한다. 만약 사위가 더 높은 집안이었거나 세력이 컸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착한 아내들의 경우, 대개는 끊임없이 참기만 하는 것에 비해, 수빙은 친정에서 고난을 이겨낼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고, 사위가 처가 쪽으로 끌려왔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위의 입장에서는 은근한 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며느리의 경우에도 같은 추모(醜貌)이지만, 친정 가문의 위상에 따라 시가에서의 차별이 달라진다는 논의(조혜란(2009), 앞의 논문.)가 있었다.

대우는 그 가문의 위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위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반영되면 무시한다고 한다. 사위 자신도 중압감 때문에 반항하거나 보복하기도 하는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바보사위가 결국에는 인정받는다든가 내용의 설화의 인기는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⁴⁰⁾

4.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집단 속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들에서 개인이 가문이나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양상을 집중적으로 보았다. 이들은 가문의 창달이나 번영, 지속을 지향하는 소설들이기에 개인보다는 집단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집단 내부에는 공유하는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이념 등이 존재하기에 이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은 그 가문에 새로 들어가는 며느리들이 무식하거나 많이 먹거나 음란할 때에 은근하게 드러난다. 비웃거나 회피하고 배척하며,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딸이나 조카를 죽이거나, 가족의 일원이 따로 나가 살지 않기를 권하거나 사적인 재산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등 집단의 가치와 이념, 화합을 중시하는 태도들도 나타난다. 이는 식욕이나 색욕 등 본성을 억제하기를 바라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클 것이며, 충효열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가문 위주의 사고방식의

40) 윤승준, 「기대와 실망, 괘시와 보복의 서사 - 구전설화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영향도 있을 것이다.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집단적 가치와 이념 등은 그 집단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개인에게는 ‘구조적 폭력(systemic violence)’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내재하는 폭력, 사회적 조건에 내재하는 폭력인 것이다.⁴¹⁾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집단적이면서도 특수하며 다른 문화들을 배제하는 속성을 지녔기에 폭력적일 수 있다. 순 씨가 아무리 지나친 식욕을 지녔을지라도, 목지란이 아무리 지나친 색욕을 지녔을지라도 그 정도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였다면 소외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영웅소설의 남주인공들, 국문장편소설의 일부 남성 인물들은 소외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어떤 공동체 속, 이데올로기적 공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그런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주체가 가진 존재의 핵심, 보편적인 본질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하고, 자기가 속한 문화의 바깥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⁴²⁾

개인 소외 현상은 신화나 전설, 민요, 야담 등에서도 보였던 바이지만, 소설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언술, 서술자의 시각 등까지 읽을 수 있어서 독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듯하다. 현재보다 더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 문화를 중시했던 조선후기의 사람들은 집단의 이념이나 가치관 등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기에 개인은 더욱 소외되고 경시되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설 향유를 통해 공감이나 연민과 함께 자각이나 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들을 주로 다룸으로써 여성 인물들

41)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4, 24~25쪽.

42)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2014), 위의 책, 201~208쪽.

이 자신의 욕구를 표출했다가 소외되는 양상을 살폈지만, 연구의 범주를 넓혀 다른 유형의 소설들을 더 고찰한다면 노인이나 이방인, 장애인 등이 소외되는 양상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생각과 감정의 소통이 어려워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한 성찰, 고전문학을 통한 감발과 반성, 위로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지영·최수현·한길연·서정민·조혜란·정언학 역주, 『임씨삼대륙』 1~5권, 소명출판, 2010.
-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 2010.
- 한길연·김지영·정언학 역주, 『유씨삼대륙』 1~4권, 소명출판, 2010.
-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18, 1~173쪽.
- 김동욱, 「한글장편소설의 ‘우부형 인물’을 통해 살펴본 정의의 문제-〈유씨삼대륙〉, 〈명주보월빙〉, 〈이씨효문록〉, 〈임씨삼대륙〉을 대상으로」, 『2018 전국고전문학자대회 발표자료집』, 2018. 11, 300~314쪽.
- 김준형, 「가족의 의미망을 통해 본 야담」,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33~163쪽.
-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개정판, 2005, 1~502쪽.
- 박주택, 「김수영 시의 소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175~207쪽.
-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65~196쪽.
- 서은주, 「냉전의 지식문화 - 1960~1970년대 소외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7, 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397~430쪽.
-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4, 1~312쪽.
- 신진, 「한국 도시시의 소외의식」, 『한국문학논총』 57, 한국문학회, 2011, 63~96쪽.
- 엄경희, 「이상의 시에 내포된 소외와 정념」,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14, 337~373쪽.
- 윤승준, 「기대와 실망, 괘시와 보복의 서사 - 구전설화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65~98쪽.
- 이상일, 「〈홍부전〉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두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235~269쪽.
- 이숙인, 「유학의 가족사상」,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31~64쪽.

- 이지영,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갈등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97~219쪽.
- 임채광, 「소외개념에 대한 프롬과 마르쿠제의 정신분석학적 해명」, 『동서철학연구』 67, 한국동서철학회, 2013, 385~407쪽.
- 정규희,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소외양상 연구」, 『동남어문논집』 27, 동남어문학회, 2009, 157~179쪽.
-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57~84쪽.
-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서, 2012, 1~336쪽.
- 정선희,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폄(褒貶)양상과 고부상(姑婦像)」,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9~39쪽.
- 정제호, 「<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205~228쪽.
-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연구 - <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83~518쪽.
-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 - <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55~289쪽.
-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0, 1~185쪽.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7~64쪽.
- 허원기, 「조선시대의 심성지식장과 소설문학」, 『국제어문』 77, 국제어문학회, 2018, 7~30쪽.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Alienation of Individuals
in Samdaerok of Korean Full-length Novels

Jeung, Sun-he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pects and causes of the alienation for individuals in groups. Especially, it concentrated on aspects of the alienation of an individual from family in Samdaerok of Korean full-length novels. Since these novels pursue the promotion, prosperity, and persistence of families, they tend to put a group above an individual. In addition, since a group shared moral ideologies, pursuits, and beliefs, there was an atmosphere of emphasizing and forcing them to its members.

These aspects of the alienation of individuals subtly appeared when daughters-in-law were ignorant, obscene, or eating a lot. Norms, ideologies, and attitudes emphasizing unity such as killing nephews for family's safety, advising a member of a family not to live separately and hoping not to own private property were also shown in those novels.

These seem to be influences of moral ideology that pursues suppression of appetite and sexual desire. In addition, these seem to be affected by pursuits that emphasizing loyalty, filial piety and fidelity and a way of thinking that prioritizes family. These ways of thinking operated as systemic violence because they existed as culture within a group.

Key Words alienation, Samdaerok of Korean full-length novels, moral ideologies, family, systemic violence, culture

논문투고일 : 2019.03.31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